



28일 밤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승 경기. 9.92초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요한 블레이크(자메이카)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 100m 대이변

자메이카 블레이크 깜짝 우승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5·자메이카)가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충격의 실격을 당했다. 볼트는 28일 오후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결승에서 5번 레인을 배정받아 스타트 총성을 기다렸다. 그러나 볼트는 총성이 울리기 전에 몸을 움지여 부정 출발의 주인공이 됐다. 부정 출발로 우승이 물거품이 되면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09년 베를린 세계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3회 연속 메이저대회 100m 우승이라는 이정표를 세우려던 볼트의 계획도 산산조각이 났다. 자메이카의 ‘떠오르는 별’ 요한 블레이크(23)가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서 깜짝 우승했다. 블레이크는 28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결승에서 9초92의 시즌 개인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미국의 윌터 티스(10초08)와 2003년 파리 세계대회 우승자인 킴 콜린스(세인트 키츠 앤드 네비스·10초09)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백인으로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던 영국의 앨런 웰스 이후 31년 만에 메이저대회 100m 결승에 오른 크리스토프 르메트르(프랑스)는 10초19의 기록으로 4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이신바예바 여자 장대높이뛰기 가뿐히 예선통과

4년 만에 정상에 도전하는 여자 장대높이뛰기 ‘지존’ 엘레나 이신바예바(29·러시아)가 예선을 가뿐히 통과하고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세계기록을 27번이나 갈아치운 이신바예바는 2년 전 베를린 세계대회에서 충격적인 3회 연속 실패로 실격을 당한 뒤 내리막을 탔다. 그러나 코치까지 바꾸면서 이번 대회에서의 명예회복을 벌였고, 이날 첫 번째 시기에서 4m55를 훌쩍 넘는 것으로 재기에 청신호를 켰다. 이신바예바와 세기의 대결을 벌일 파비아나 무레트(브라질), 안나 로고프스카(폴란드), 스페를라나 페오라노바(러시아·4m55)도 결승에 올랐다. 여자 장대높이뛰기 결승전은 30일 오후 7시5분부터 치러진다. /연합뉴스

산산조각이 났다. 자메이카의 ‘떠오르는 별’ 요한 블레이크(23)가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서 깜짝 우승했다. 블레이크는 28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결승에서 9초92의 시즌 개인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미국의 윌터 티스(10초08)와 2003년 파리 세계대회 우승자인 킴 콜린스(세인트 키츠 앤드 네비스·10초09)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백인으로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던 영국의 앨런 웰스 이후 31년 만에 메이저대회 100m 결승에 오른 크리스토프 르메트르(프랑스)는 10초19의 기록으로 4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개막식 열기

27일 오후 대구스타디움에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회식이 열린 가운데 관중석이 꽉 차있다. ‘꿈·열정·도전’을 기치로 내건 이번 대회에는 세계 2000여명의 선수가 출전, 다음달 4일까지 47개 종목에서 열린 경쟁을 펼친다. /대구=한신협 공동취재단

“아깝다!” 한국 잇따라 결선 실패

정혜림 여자 100m 준결승 실패... “그래도 잘 달렸다”

김현섭 경보 20km서 1시간21분16초 6위 첫 ‘톱 10’

불가능을 향한 한국 선수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시작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에 한국은 63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안방에서 열리는 세계대회를 위해 10개 종목 10명의 결선 진출자 배출을 위한 ‘10-10’의 목표를 내걸고 철저부심 준비를 해온 선수들이지만 세계의 벽은 높았다. 대회 개막일인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한국에서 톱 10안에 든 선수는 남자 경보 20km의 김현섭이 유일했다. 김현섭은 대회 이틀째인 28일 경보 20km에서 1시간21분16초를 기록하면서 6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국기록(1시간19분31초)에 2분가량 뒤진 기록으로 메달권에 드는 데 실패했지만 한국의 첫 톱10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 첫날 출발부터 좋지 못했다. 남자 100m 한국기록(10초23)을 가지고 있는 김국영은 스타 선수들과 한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하고 아쉬운 눈물을 흘렸다. 세계선수권 대회 기준 기록을 통과하지 못해 자격 예선을 나선 김국영은 부정 출발로 레이스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경기장을 떠나야 했다.

남자 장대높이뛰기에 출전한 김유석도 자신의 최고기록인 5m66에도 미치지 못하는 5m35를 넘지 못하고 예선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광주우아시안게임 여자 멀리뛰기 금메달리스트 정순옥도 자신의 최고 기록인 6m76에 부족한 6m18에 그쳤다. 남자 해머던지기 이윤철은 68m98을 던지며 자신의 최고기록을 세웠으나 결선 진출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자 100m 자격예선에 출전했던 정혜림만 11초90으로 2위로 본선 1라운드에 진출해 대회 첫날 한국 선수단의 체면을 세웠다. 대회 둘째 날인 28일에도 아쉬운 장면이 속출했다. 한국신기록과 결선진출에 도전했던 한국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간판인 최윤희는 4m50m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경기를 마쳤다. 4m40의 한국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최윤희는 4m40을 첫 번째 시기에서 성공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지난해 광주우아시안게임 남자 110m 허들에서 13초38의 한국신기록으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박태경도 자신의 기록 단축이라는 꿈이

루지 못했다. 이날 본선 1라운드에서 세계기록 보유자인 쿠바의 다이톤 로블레스와 한 조로 땀 박태경은 13초83으로 최하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남자 400m의 박봉고는 46초42로 개인 시즌 최고 기록을 작성했지만 조 5위를 기록하면서 조 4위까지 주어진 준결승행 티켓을 가져오지 못했다. /대구=한신협 공동취재단

여자 마라톤· 여자 1만m서 케냐, 금·은·동 싹쓸이

제13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첫날의 메달은 아프리카 대륙의 케냐가 모두 가져갔다. 케냐는 9일간의 열전이 시작된 27일 여자 마라톤과 여자 1만m에서 금·은·동메달 6개를 모두 휩쓸었다. 이날 오전 9시 대회 첫 경기로 시작된 여자 마라톤에서 케냐의 철각 에드나 키피라갓(32)은 2시간28분43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키피라갓의 팀 동료인 프리스카 제프투(27·2시간29분00초)와 사론 체로프(27·2시간29분14초)도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며 케냐의 위용을 과시했다. 이날 오후 9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1만000m에서도 케냐의 비비안 체우이요트(28)가 30분48초98의 개인 최고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연합뉴스

GRAND OPEN
8월 30일

유·스퀘어 사우나

24시

위치 :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주차안내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